

제37회 한일 · 일한경제인회의의 성황리에 폐막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37회째를 맞이한 금번회의에서는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과 한일우정의 해를 기념하여 **양국정상의 축하메시지**를 비롯하여 우리협회 **박대준 명예회장께 특별공로상이 시상**되었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향후 협력방안”을 전망하고, “제조업 및 문화·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나누고 폐막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45명이,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3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여,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최근 양국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우려와는 달리 대 성황리에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었으며, 이는 **많은 경제인들이 한일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솔직한 대화로 제반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경제계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움직임 속에 양국 경제계에 있어 최대 관심사인 한일FTA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번 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FTA의 년도내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경제계대표가 매년 4월 정례적으로 만나 한일간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든든한 파이프를 구축함으로써 **한일관계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회의는 내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희망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표자료 다운로드 : <http://kjcf1992.webhard.co.kr> 접속, 아이디 guest, 패스워드 1111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폴더에서 다운로드

제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



우리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주최로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한일고교생교류캠프(경제경영 체험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양국 고교생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동경에서 제4회 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양국 고교생이 언어의 벽을 넘어 한일 합작상품 기획·발표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공동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정을 싹틔워 가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동의 고리”를 넓혀나가고자 금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회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호쿠리쿠지역) 기업상담회 참가모집 안내

오는 7. 19(화)~20(수) 경상북도 경주시 호텔현대에서 개최되는 한일기업상담회 참가기업을 찾습니다. 일본 호쿠리쿠지역(新潟縣, 富山縣, 福井縣, 石川縣)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한·일(호쿠리쿠지역) 양국 기업 간 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인간 관심사항에 대한 사전 매칭(상담)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각각 상담 관심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신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국 및 일본측 파트너 기업을 물색해 나가고자 하오니,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본측 참가희망기업>

- (주)위드 :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희망(제조위탁, 판매)
 - 광촉매에 관한 모든 제조, 판매, 시공 - 광촉매 작용과 음이온과의 조합 상품 제조, 판매
- 하리하라가구점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기술협력 희망
 - 일반가구, 소파, 침대 - 액자, 유화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행사 개최



2005년도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행사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5월 8일(일)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高野 紀元(다카노 토시유키) 주한일본대사 및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송추C.C에서 친선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日本은 지금...

1엔 創業은 有效한가?

<過保護는 강한 회사로 成長하지 못한다>

「1엔의 자본금으로도 개업(창업)」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恒久化 된다. 起業(창업)이 쉽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1엔 起業(창업) 제도」에 대한 냉담한 의견이 의외로 많다.

벤처 기업가의 발굴·육성을 양성하는 JCI 서비스社의 福西 裕 사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한다.

우선 「"1엔"으로 상징 되어지는 작은 자본에서는 기업은 성장치 않는다」는 현실론.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계의 벤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엔은 필요」

금형 등의 투자 외에 기술, 영업 등을 담당하는 5명의 창업팀이 1년간은 수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차입할 수밖에 없지만, 「1엔 회사」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다.

또 하나는 경영자의 자질론이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1,000만엔의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경영자에게 요구되어 진다」.

최근 몇 년간, 대학發 벤처가 비온 후 竹筍처럼 탄생하였다. 하지만 福西 裕 사장에게 들어 보면 「그 대부분이 망했다. 경영력 없이 조그만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기업을 계속할 정도로 세상은 간단치 않다」.

물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회사數에 우선 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옹호하는 경향도 많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도산과 폐업이 한꺼번에 증가 하였다. 반면 창업이 줄어 일본경제의 新陳代謝 능력은 급속하게 떨어졌다. 經濟産業省에 의하면, 「자본금이 1엔」이어도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는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2003년 12월부터 2년간에 약 20,000개사가 탄생하였다.

이 논쟁은 마치 少子化(低出產) 대책에 관한 논의와도 유사하다. 「일본인이 감소하면 큰일이다. 어쨌든 많이 낳아 늘려야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한편으로, 「아이를 애지중지 길러서 기를 북돋아 주어도 제대로 된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 우수한 아이는 엄격하게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活力差가 국민의 「創業家 精神의 差」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1엔 企業 論爭」은 논쟁으로서 활성화로 이어 질 듯한 것은 어쨌든 해보고, 동시에 틀렸다면 불충분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대담하게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 창업(기업)을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엔의 자본금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한시적 특례제도가 恒久化 된다고 합니다. 반대 여론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4>

日本の 經濟・産業・社會 토픽스

● **초당파적으로 서머타임 제도 도입법안 본격 검토**

최근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온난화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서머타임 제도 도입법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입검토 배경으로서 첫째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민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기업과 노동조합에서도 동 제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셋째로 지방자치체에서도 동 제도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어패럴기업**

개인소비의 부진과 버블붕괴 이후 수익악화에 시달려온 어패럴업계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로 판로개척을 위해 집객력이 있는 전국의 쇼핑센터 내에 스스로 출점하고 부인복을 주체로 적당한 브랜드상품을 투입해 높은 채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고, 둘째로 해외에서의 판매전개 특히 중국에서 상업시설 내의 적극적인 출점과 현지인 디자이너 채용, 그리고 대량의 체형 데이터 분석에 의한 현지니즈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서의 판매체제 준비를 급속히 전개하고 있고, 셋째로 과감한 거래형태의 개선 즉, 지금까지 어패럴기업 측에 반품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의 일부를

「collaboration거래」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로 이행하여 반품재고의 부담경감과 수익구조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패럴기업은 지금이상으로 상품개발력과 영업력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동업타사와의 합종연횡, 타사의 브랜드 매수 등 업계재편이 진전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 **슈퍼싱글타이어 개발에 박차**

대형 상용차 후륜 축에 일반타이어 2개씩을 장착하는 대신 타이어 폭을 일반타이어보다 1.5배정도 넓혀 1개씩만 장착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수송효율화의 향상을 위한 슈퍼싱글타이어 개발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타이어의 개발은 일찍부터 진행되었지만 내구성 문제로 폭이 넓어지는 만큼 타이어경이 커져 경량화메리트가 한정적이 되어 보급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보강구조기술의 향상으로 일반타이어와 동등한 타이어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펑크가 난 경우에도 급격한 공기누수를 방지하는 안전성을 높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응차종의 투입이 진행되고 있고, 타이어 폭 감소에 따라 넓어진 스페이스에 엔진과 전기모터를 병용한 하이브리드시스템을 탑재하여 연비를 더욱 개선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과제로서 타이어메이커는 완성차메이커와 협력하여 장착가능차종을 확대시켜 양산화에 따른 코스트 인하와 주행 불능시 단시간에 현장으로 가 보수해 주는 서비스거점의 확충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2005. 5>

會員 動靜 & 短信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와세다대학 측은 조석래 회장이 66년부터 효성 그룹 경영을 통해 한국 화섬산업에 최첨단 혁신공법을 도입하는 등 공정혁신과 생산기술 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며, 한일 양



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 있기에 명예공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지난 5월 6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전선 50주년 창립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개최된 제24회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李秀永) 회장을 우리협회 고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성재갑(成在甲) 부회장(LG석유화학(주) 고문)은 지난 3월 25일 화학산업 관련 9개 단체와 508개 회원사가 참여해 출범한 국내 화학 업계의 최대 단체인 “한국화학산업연합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길현(李吉鉉) 감사((주)경원 회장, 한일친선협회 부회장)는 5월에 정치·외교·산업경제·학술문화 등 한일양국의 교류협력에 공헌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春の叙勲-旭日中綬章)을 받습니다.

■ 사무국은 우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전해드리고자 금번에 **『한일경제협회 소식』을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미비하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본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014-9888)

■ 우리협회는 그 동안 쌓아 온 한일간 경험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민간경협 채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회장단 영입 및 회원사 확충**을 통해, 협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가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 2005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0(목)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서울 (협회 회의실)
2	3(목)~5(토)	2005년도 오무따(大牟田) 산업미션 유치	서울
	4(금)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1(금)~15(화)	제4회 한일고교생경제캠프 파견	도쿄
	14(월)~18(금)	한일부품소재상담회 개최	오사카·큐슈
	15(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7(목)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25(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서울
	27(일)~3.5(토)	04경영관리연수	요코하마
4	14(목)~15(금)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서울 (신라호텔)
5	8(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송추C.C
	16(월)~19(목)	제4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세미나 개최	도쿄
	23(월)~6.4(토)	05경영관리연수 1차	도쿄
		생산성향상단기컨설팅	한국
6	8(수)~12(일)	아시아산업기술페어 파견	키타큐슈
	16(목)~7.2(토)	부품관리연수	오이소
7	10(일)~16(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	도쿄 등
	11(월)~8.12(금)	지식산업 국내어학연수	안산
	19(화)~22(금)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경주 (현대호텔)
		제5회 한일고교생경제캠프 파견	도쿄
8	22(월)~11.12(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	일본
9	4(일)~16(금)	05경영관리연수 2차	도쿄
	26(월)~30(금)	한일산업기술촉진미션 파견	오사카 등
10	4(화)~8(토)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도쿄
	10(월)~13(목)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제천
	26(수)~28(금)	제5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세미나 개최	서울
		산업기술교류미션 수용	서울 등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11	21(월)~22(화)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교토
	28(월)~12.1(목)	제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대전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키타큐슈·한국기술·업무제휴개척미션 방한	서울, 경기
12	4(일)~10(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수용	서울 등
	5(월)~19(월)	이공계대학생산업기술체험캠프 파견	도쿄 등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제6회 한일고교생경제캠프 유치	한국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도쿄·삿쵸로